

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

건설기술인 권리침해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(답변자 4,352명)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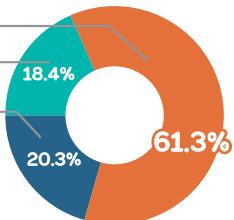
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여부

- 간혹 있었다
2,669명

- 자주 있었다
883명

- 전혀없다
800명

계 : 4,352명



설문답변자의 81.6%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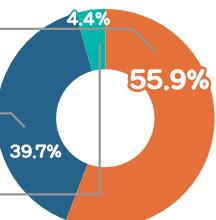
부당한 요구 거절 여부

- 거의 거절하지 못한다
1,987명

- 몇 번 거절해 보았다
1,409명

- 매번 거절하였다
156명

계 : 3,552명



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55.9%로 거절 4.4%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

부당한 요구 유형

①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.0% (2,107 명)

- ②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전가(금전적 손해 강요) 24.6% (1,995 명)
- ③ 근무시간 이외(휴일포함) 업무 강요 및 지시 18.1% (1,469 명)
- ④ 사업(공사)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업무행위 10.4% (845 명)
- ⑤ 실제 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명, 진술, 문서작성 요구 8.7% (707 명)
- ⑥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금품(뒷돈) 요구 (공사비·자재비 부풀리기, 업체밀어주기 등) 8.3% (675 명)
- ⑦ 개인적인 업무(대리운전 등) 강요 및 지시 3.9% (316 명)

계 (복수응답) 8,114 명



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

①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66.1% (2,348 명)

- ② 업계(소속회사)의 관행이므로 21.6% (767 명)
- ③ 본사(또는 대표)를 통해 전달되므로 거절하기 어려움 10.1% (359 명)
- ④ 부당한 요구인지 인지하지 못해서 1.0% (35 명)
- ⑤ 기타 1.2% (43 명)

계 3,552 명

